

머 리 말

흔히 어른들은 지난 날 자신들의 청소년기로 미루어 지금의 청소년을 보는 버릇이 있다. 지내 보았으니 자기들이 청소년기를 더 잘 알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그때의 자기의 문제, 사고, 이상, 규범 등으로 오늘의 청소년을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석·판단·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한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이 되고 그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문제삼아 우려하던 말들을 이제는 자신들이 “요세 젊은 놈들은……”라는 접두사로서 발언을 시작하는 한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형화된 인식이란 한 마디로 청소년들을 어른의 안경, 좀 더 과장되게 말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어른들의 안경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보는 데 적합하고 타당한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개발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관점에서 그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원인-결과’의 좁은 틀로서 보아 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구되는 청소년 문제에는 이러한 접근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반화된 지식이나 사실보다 역동적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보다 강조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를 역동적이고 발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청소년들의 관심의 상태, 청소년들의 경험된 딜레마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른들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이 쓰는 안경의 적절성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공통의 관심사의 주변에서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시리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관계, 청소년과 학습·진로문제, 청소년과 이성문제, 청소년과 비행, 그리고 청소년과 정신건강 등의 5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어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10개의 주제들은,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 관해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전제들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반성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체육청소년부와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진들의 창의와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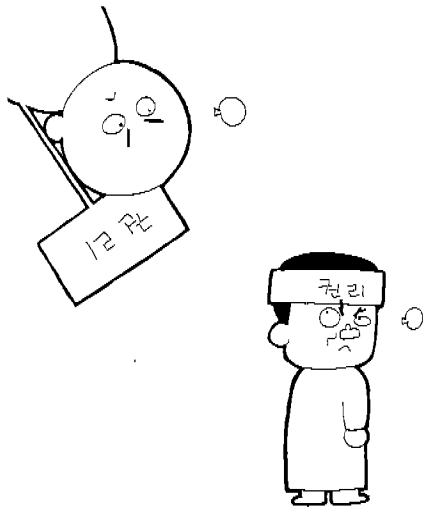
1990. 12

한국청소년연구원
원장 이 윤 구

차 례

부모의 권리 자녀의 권리
문제의 부모 문제의 자녀
세대차 극복할 수 있나
맞벌이 부모는 문제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위선자인가
부모-자녀의 대화 어떻게 해야하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싫어요
참 잘 했구나
나도 잘하고 싶어요

부모의 권리 자녀의 권리



가정을 이끌어 가는 부모의 권리는 당연한 것이며 절대로 기피할 수 없다. 자녀는 지혜롭고, 끈기있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의 권리, 자녀의 권리

대가족 사회에서 부모의 기능은 쉬운 편이었다. 가족 중 어른들이 양육과 교육을 분담해 주었고, 자녀가 크는 사이에 빚어지는 문제 사태도 현장 학습으로 처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를테면 밀도 높은 지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핵가족 사회로 전환되면서 자녀를 가진 부모의 할 일이나 부담이 무거워졌다.

상담실에 걸려온 두 건의 전화 상담 사례가 있다.

“우리 집 정옥이는 말을 통 안 들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차분하고, 공부를 잘 하더니, 요즘은 체격도 커지고, 중학생이라서 인지 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화일까요?”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분명히 형성 과정이 있었고, 고착된 타성이 숨어 있다. 그것은 이슬비처럼 쌓여서 학생의 가슴에 침전이 된 것이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아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한다 잘한다’고 믿어버렸습니다. 간식이며 점심을 사먹으라고 자꾸 돈을 주었습니다. 그게 모두 아이를 저 꼴로 만든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생활은 노예라고도 표현하고, 식소사번(食少事煩 먹을 것은 적고, 할 일은 많음)이라고 한다. 생활이란 복잡하다는 점을 표현한 말이다. 그래도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부모의 의무가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절대로 기피할 수 없는 것이다. 외면하는 일은 포기과 같으며 이것은 절대적 권리라고 하겠다.

또 다른 전화는 아버지가 목이 메이는 소리였다.

“우리 딸 옥경이를 국민학교 5학년까지 내가 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하더니 이제는 중3인데도 할 일을 잃어버리고 고삐가 풀린 송아지와 똑같습니다. 중학생인데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자기 생활 정도는 맡끔히 할 나이거든요?”

그 아이는 정말 무력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다.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방만한 과잉 보호는 학생의 할 일을 모두 빼앗아 갔다.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한 마디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의 이야기처럼 똑딱 물을 눈 앞에 대령했고 ‘빵’하면 빵을 곧 대령했다. 덤으로 주스도 가져다 주는 열성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 하는 줄 알았다.

심지어는 시험 공부도 대리 시험만 겨우 못했을 뿐, 거의 같이 공부를 돕는 부모들 때문에 그 아이는 놀고 먹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은 부모의 할 일이 아니라 남용이다. 흔히 약물의 남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학생제의 남용을 보더라도 그렇듯이 아무리 효과가 있더라도 이를 남용해서 필요량 이상이 몸에 축적되면 백혈구 파괴라는 인체에 무서운 부작용을 가져온다. 부모의 할 일은 정해져 있다.

- 자녀를 튼튼하게 길러야 한다.
- 안전을 유지해서 편안히 자라도록 해야 한다.
- 바르게 배워서 쓸모있는 지식을 갖추게 한다.
- 올바른 생활인·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열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끈기있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사소한 오류나 다소의 오차, 판단의 착오, 부실한 가치관 등은 자녀

를 어긋나게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이솝의 게 걸음 이야기는, 부모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서 자녀의 성장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불멸의 명작이다.

진이네 가정은 부모가 자기들의 권리를 챙기는 편입니다.

자녀들을 탐스럽게 기른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고 잘 가꿉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의 동신표를 가져온 날, 집에는 난 종류가운데 ‘관음소심’이 개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퇴근을 했는데 어머니는 통신표를 내밀고 꽃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에 쌍무지개가 뜬 경사를 만났구려! 당신, 오늘은 기뻐했는데요.”

“예! 우리 집이 꽃밭같아요.”

“그래요, 그 말이 맞소. 나는 오늘 또 꽃밭에 와서 쉬어가는 손님인데 내일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지!”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당신은 꽃과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야.”

진이 아버지의 견해는 분명했다. 부모가 꽃을 가꾸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말을 평소에도 자주 했다. 자녀는 그것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 자녀의 교육은 잔소리의 천 마다보다는 바르게 루시가 되는 거울을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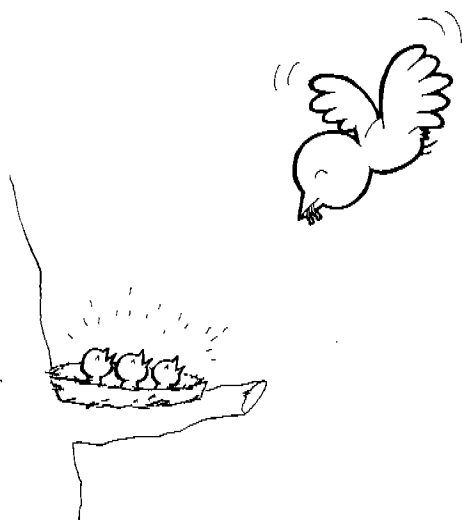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 간다. 우선 식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동일시(同一視)이다. 가문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처럼 조상의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현대식으로 해석해서 가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물을 파서 얻은 물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녀는 우물을 판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풍이라고 이름지

을 수 있다. 전통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꾸어 얻은 것은 소중한 가풍이다. 그 속에서 사는 자녀는 그런 물이 들어서 품위있고, 바르고, 편안하게 사는 생활의 지혜를 깨우치게 되며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도 있다.

“그게 곧 부모의 유산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벼슬도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운동장만한 호화판 아파트에 살지도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꽃밭이 들림없요.”

“그 말씀이 맞아요. 나도 즐겨워요” “나도 당신 때문에 덩달아 정원사가 되는가 보구려!”

그러면서 부모의 권리를 더 강조했다. 원만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자녀는 탈선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쓸모있는 사회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녀는 도리를 다하고 권리를 찾도록 가르친다

오늘 날, 우리 사회가 겪는 특이한 현상인데, 현대인은 목소리가 커졌다. 자녀들도 자기 이익,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것을 즐겁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실상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 거기에는 도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란 다시 말해 바로 자녀의 권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엄격히 구분해 보면 다들 테지만 권리는 그럴 때 생성이 되는 것이다.

자녀 지도에서 과보호와 우대는 부정적 불씨가 된다. 핵가족 시대에 돌입하면서 부모는 바쁘거나 몰라서 가정 교육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민숙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집에 드나드는 손님이 있으면 용돈을 청구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남들이 보는데서
 “엄마, 나 오늘 롤러 스케트 사야해요.”
 “다음에 사자.”
 “안 돼요. 꼭 사야 해요.”

부모를 곤경에 빠뜨려서 그의 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기회주의자이다. 그것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시기에 못 가르친 결과이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모르는 부모도 흔히 있다.

- 부모에게 경어를 바르게 쓰는가?
- 인사를 하는가?
- 부모가 하는 일을 돕는가?
- 차기의 신상 문제를 의논하고 협력을 얻는가?
- 검소한 생활을 하는가?

등등이 가르칠 내용이다.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기반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병식이 부모는 막노동을 해서 살아갑니다. 외아들 병식이는 중2 때까지 공부도 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3이 되어 도봉구로 이사를 하면서 숙어로 ‘뽕도를 뽕았다’는 본드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다니기 싫어서 치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고 3년을 도중 하차하고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모를 졸랐습니다.

“나, 나팔 바지 사줘”

“학교에 가면 사 줄게”

“싫어, 학교는 죽어도 안 가”

“그럼 뭐 할래?”

“취직”

“네가 취직해? 어디에”

“분위기 있고 편한 데야”

“그게 어딘데?”

“카페, 우리 선배가 하는데 거기에 취직시켜 준댔다!”

“그래?”

“엄마, 나 오토바이도 하나 사줘”

“뭐? 오토바이 타고 술 배달하려고?”

“아니, 놀러 다니게”

“오토바이는 죽어도 못사준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중3이 되면서 어머니는 역부족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다. 이사를 해서 교우관계에 하자가 생겼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지도도 따를 수 없었다.

자녀들의 머리 속에 부모는 돈버는 기계로 착각하는 수도 있다.

“컴퓨터 사줘”

“공부하려고?”

“아니, 게임할 거야”

오락실에 빠진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그같은 씨름을 하다가 대책을 찾느라고 부심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도리는 잊어버리고, 권리만 의식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집을 짓는 기초와 같다. 기초는 한옥을 짓는 데서는 주춧돌이다. 기초나 주춧돌이 약하면 집이 쓰러지기 쉽다.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

그런 부담이 위험 수위처럼 몰려오는 것을 자녀들은 모른다. 부모도 모르는 수가 있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육, 방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선정이네 집은 예외이다.

자녀들에게 가족 구성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아버지의 비결이 있다.

- 중요한 집안 일 의논하기
- 가족 오락회 개최

등으로 자녀들의 자주성을 기르면서 자기의 생각을 펴는 기본 훈련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었다. 그 뒤, 부모는 ‘땅 위에서 해엄치기’처럼 자녀를 가르친다.

“선영이는 오늘, 어머니가 아픈 데 뭘 도와 드렸지?”

“선영이는 언니와 같이 협력해서 마루 청소를 했니?”

정곡을 찢어서 자녀들의 도리를 가르친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말이 있다.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쓰러진다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선정이는 반드시 경어를 쓰고, 어디에 가서도 할 말을 다소곳이, 바르게 할 줄 안다.

그같은 자녀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부모를 비방하거나 거부하거나 잔소리꾼으로 매도할리는 없다. 인간관계의 교통은 항상 왕복차선이 된다. 그의 주장이나 권리 찾기는 ‘보편타당’이라는 무난한 색깔을 가지게 된다.

“무슨 소리하는 거야?”

“그게 학생의 몸차림이야?”

빛나간 권리를 주장하는 자녀를 보면 99%의 부모가 짜증을 낸다. ‘저런꼴이 어디 있어?’라고 걱정을 한다. 부모로부터 바르게 배운 자녀는 권리의 주장도 타당해서 3차색처럼 수수하고 무난하며 그게 곧 가르친 결과이다.

문제의 부모 문제의 자녀



자녀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무의식적인 ‘역할 모델’이 고성능 복사기와 같아서 복제된 행동을 만들어 낸다. 허다한 부모는 그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산다. 자녀 교육의 허점이 여기에 있다.

잘 짖은 복사판처럼

동민이의 아버지는 명문 S대학교 상과 대학을, 어머니는 음악대학을 졸업한 인테리 가정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간혹 술주정을 했다. 성미가 급한 편인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면서 고향을 지른다.

“문 열어!”

“예, 나가요”

“빨리 문 열어, ○할년”

“누가 들어요.”

“○년아, 들으면 어때?”

그런 촌극이 자주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부부는 동갑내기인데 아내가 예술인이라 화려하고 개방적인지라 아버지는 늘 가위눌림을 당한다고 느꼈다. 열등 의식에 젖은 아버지에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약한 사람들의 길은 한 곳밖에 없다. 그도 다름없는 속물의 근성이 짙었다. 술을 마시고 오면 동네 입구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거나 욕지거리를 하다가 집에 다다르면 드디어 행패를 부리기에 이른다. 밀집해서 사는 도시의 생활 공간은 비좁아서 이웃 집 숨소리도 들릴 지경이다. 특히 우리의 이웃들은 불필요한 남의 일에 관심이 커서 그런 사건은 꼬리를 달고 날아다닌다.

어머니는 동네에 나가면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듯 해서 창피했고 더 곤란한 것은 동네 미장원이었다.

“동민이 었마, 아빠를 좀 어떻게 하세요. 요즘은 자주 마을 입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경범죄에 걸려서 즉시에 넘어가면 벌금

물어야 해요.”

“미용사 언니는 별 걱정 다한다.”

“아니어요. 가정 불화도 잦다면서요, 그 부부 싸움은 사랑 싸움도 아닐테고”

그런 말은 무척 불쾌했다.

아버지가 가장(家長)이라서 가족들은 함부로 말도 못하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것은 아내이다. 어머니가 충고를 해야 할 사람인데, ‘○할년’이라고 욕하는 사람에게 충고는 수용될 여지가 없었다.

어느 날 또 취한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들을 불렀다.

“동민아 동민아!”

“예?”

“너 이리 와 봐”

“왜요?”

“아빠 오늘 술 취해서 힘 세다. 부자간의 싸움 대화하자”

“싫어요”

동민이는 거부 반응이 강했다.

아버지를 무척 경멸하는 빛이 역력한 눈초리로 노려 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지극히 언어를 절약하는 불완전 문장, 3단어 미만의 말에 불과하다.

“아버지, 약주 취하셨어요. 주무시지요”

“오냐,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 나쁜 일이 있길래 조금 마셨다.”

이쯤의 대화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다. 아버지의 변명도 그쯤 해 두면 동민이는 경멸의 빛으로 아버지를 쏘아 볼 이유가 없

다. 자녀는 부모와 더불어 날마다 자란다. 그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어서’ 식성도, 취향도 닮는데 가장 정확하게 닮는 것은 언어와 행동이다. 아버지도 모르논새 동민이도 아버지의 물이 들어 그가 쓰는 말은 부정적이고 색깔이 어두웠다.

- “싫어요”
- “아니요”
- “왜요?”

부정 심리의 표출과 거부 반응과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 행동은 원인의 대부분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남발하는 행동이 곧 모델이 되었다. 역할 모델이 된 부모의 행동은 고성능 복사기처럼 원판과 똑같은 행동을 만들어 낸다.

맵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의 음식 습관을 보는 자녀는 그처럼 맵게 먹는다. 부모가 짜게 먹는 것을 보면 자녀는 저절로 짠 음식을 잘 먹는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 행동의 모델이 된다. 성미가 급한 가정의 자녀인 민근이는 아버지처럼 성급한데 말이 바쁘고 빨랐다.

“무척 빨리 빨리 먹었다”를 “무지 빨빨 먹었다”로 말하는 식이다.

형근이의 경우는 아버지가 부두에서 노동을 했다. 부두의 노동은 한정된 시간에 작업을 처리해야 하므로 행동이나 말이 거칠다. 사람들은 성급해져서 욕설을 흔히 쓰는데 형근이 아버지도 그제 생활 언어가 되었다. 집에 와서도 기회만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욕을 했다. 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상투적인 생활 언어로 욕을 퍼부었다. 그래서인지 형근이는 학교에서 ‘욕소리대장’으로 별명이 붙

게 되었고 형근이가 지나가는 곳은 오물이 떨어졌다. 교실에서 동급생들은 형근이를 기피했다. 그 곁에 가면 악취가 난다고 코를 막으면서 도망갔다.

부모가 가진 문제 행동은 또 다른 문제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자존심과 권위를 앞세우는 부모가 그같은 문제의 현주소를 모르는 데에 있다. 자기의 오점을 물어버리고, 자녀만 바르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기대되는 행동을 바라는 것은 교육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때 ‘기대 수준’이라고 말한다. 기대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성취도가 높은 것만은 아니다. 의지력과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수반됐을 때 부모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잘못 영향 미친 자녀들의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



가족 사이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우선 발견이 중요하다. 발견은 곧 행동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행동이 모릅지기 역할 모델이라야 함은 중요한 과제이다.

다연발 총처럼 쏟아지는 행동

우리 나라의 민담 가운데 ‘아버지의 지게’ 이야기가 있다.

망령을 부리는 늙은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지게에다 짊어진 아들이 버리러 산으로 갔다. 깊은 산 속에서다 늙은이를 버리고 올 때, 따라간 아들이 지게를 쳤겠다.

“아버지 그 지게를 왜 버리고 가세요?”

“내버리지 뭐”

“가지고 가세요. 요 다음 나도 아버지를 내다 버릴 때 써야지요.”

아버지의 문제 행동을 자녀는 더러 무비판적으로 진수한다. 그런데 학습이나 행동은 이상한 효과가 있어서 비교육적인 것 또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훨씬 빨리 정확하게 익힌다.

규호는 해외 근무를 하는 아버지를 따라 가서 5년이나 살다가 입학 시기가 되어 귀국했다. 보육원의 신세를 지고 자라면서 외국어를 능숙하게 했으나 우리 말을 모르고 돌아와서 국어를 배우는데, 동네에 나가 놀면서 가장 먼저 배운 어휘는 ‘죽어’였다.

할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불렀다.

“할머니, 죽어”

“그게 무슨 소리야?”

“죽어!”

아버지가 불러도 동생이 오빠를 불러도 모두 ‘죽어’를 남발했다.
아버지의 과격한 주벽과 문을 차는 만용, 그리고 아내에게 쏟는
행패를 비디오처럼 지켜 본 동민이에게는 두 가지 행동 반응이
나타났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들어오다가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 문열어”

“그래!”

“빨리 열어”

“알았어”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는 사이였다. 아들은 순간을 참
지 못했다.

“빨리 열어 될하는 거야?”

소리소리 지르면서 팽팽 소리가 나도록 발길로 문을 찼다. 아버
지의 행동과 똑 같았다.

“이 녀석 좀 봐, 왜 문을 차니? 술 마셨나?”

“빨리 안 열고 뭘해?”

“동민아!”

“엄마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아들은 끝내 오만불손했으며 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씨 도둑은
못한다’는 속담이 떠올랐다. 부모가 가진 내력은 없애지 못한다는
뜻이며 비슷한 말로 부전자전이라고 한다.

“이 녀석 좀 봐, 그것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예미 앞에서 학생의
행동이 그게 뭐야?”

“왜요?”

“정말 어디서 배운 거야?”

“영, 아빠도 그랬는데”

“나쁘다. 학생이 무슨 행동을 그렇게 해?”

“이상하다”

동민이는 어머니가 시비를 건다고 보고 이상하다는 표현을 했다. 난장이들만 사는 나라에 키 큰 사람이 들어가면 키가 크게 오히려 이상한 존재가 되는 법이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틈에 정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끼면 정상이 반대로 이상하게 보인다. 그와같은 부모의 행위는 거의 전사(轉寫)가 잘 되어 지워버리기 어렵다.

나는 오랫동안 국립 교육 기관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에 있다. 3학년 담임을 했을 때의 추억인데, 부임한 첫 해라 그들의 인상이 깊었다.

학교 방침은 학년초, 기간을 정해 놓고 가정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첫 해는 지역 실태, 학부모의 환경을 보고 싶어서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한 대상을 선정했다. 몇 집만 돌아보는 것이다. 주마간산 격으로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시간중에 항상 불안정한 동석이, 공부를 못하는 용근이, 항상 우울한 민선의 가정배경도 발견했다. 내가 눈여겨 본 것은 지역 사회의 실태였다.

그 이듬 해부터는 혼자만 가정 방문을 기피했다. 담임 1주일이면 학생들의 활동이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 가정 문화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얼굴이며 행동에는 반드시 가정 문화의 배경이 그림자처럼 투영이 된다. 나는 거의 정확하게 관독을 했다.

- 경박한 행동을 하는 학생
- 불안정하고 자주성이 없는 학생
-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학생
- 이지적이고 양보심이 강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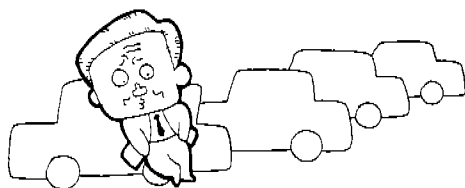
부모가 가진 문제는 많이 있다.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방편이 되어서 것처럼 살다보니까 자기 자신은 그게 문제성인 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 도벽을 가진 행동
- 수다를 떠는 성격
- 사나운 심술
-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버릇
- 허욕을 부리는 욕구
- 과대 망상증
- 경박한 말이나 행동
- 비위생, 미신을 따르는 생활
- 정리 정돈을 할 줄 모르고 불결하게 사는 습성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 행동이 있다. 우리의 사상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서양 사람들과는 다르다. 앞서는 것보다는 중간을 좋아하며 중용을 지키고 따르려고 한다.

바른 행동의 표준을 컴퓨터의 자료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막연한 표현으로 하면 무난하고, 원만한 수준이 일상적인 행동의 준거가 된다.

세대차 극복할 수 있나



아버지는 네대
나는 한대
어쩔수 없는 세대차

사회 발전에 따라 학력,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 세대차가 발생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신 세대의 단순 논리와 주장 만이 타당하다는 당위론은 위험성이 있다. 부모는 권위주의가 아 닌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세대차, 얼마나 벌어졌는가

기성 세대와 청소년을 대비해 보면서 세대차를 재어 보자면 엄청난 간격을 볼 수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 보수적이고, 고정 관념에 빠져서 융통성이 없다.

병기 아버지는 본디 ‘백창호’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아들이 유학을 다녀오면서 서양 상품 몇 가지를 사왔다.

“아버지, 이거 담배인데, 피워 보시죠, 박하가 들어 있어서 좋아요”

“그게 무슨 담배야? 담배는 독해야지”

“이건 애들이 좋아하는 초코렛이어요. 달기는 한데 묘한 맛이 있어요”

“과자가 달아야지 이상한 맛이 뭐냐?”

“아버지 괜찮아요”

“뭐가 달이냐?”

“지금은 온 세상이 한데 어울려서 살거든요. 같이 살아가려면 생각이나 먹는 것을 서양과 동양을 가릴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싫다”

아버지는 시원한 냉수에다가 구수한 된장찌개 짜릿한 소주가 일품이라고 좋아한다. 스파게티, 햄버거, 피자, 콜라 따위의 ‘신식 사람들’이 즐기는 식품은 이름만 들어도 질색이다.

식품이나 언어 감각은 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생각 즉 사상을 끌고 다닌다. 다시 말하자면 동반자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 식품 선택이나 식품 문화가 서구화하면 사상도 그쪽으로 기우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병기는 디스코, 햄버거, 콜라의 생활 문화에 익숙해졌다. 잡식성처럼 식품을 고루 섭취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서양식

식품에 더 친근하다.

그 다음의 세대차를 볼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있다. 기계를 다루는 감각이다.

“오늘, 라디오 연속극이 뭐더라?”

“시간 맞추어, 방송 들어야지”

기성 세대는 시간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감각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수준에 묶여 있다. 단순 조작을 해서 다루기 쉬운 것에 매달린다. 라디오를 사랑한다기 보다는 자기가 가진 기계 조작 기능과 수준이 맞으므로 만만하게 여긴다. 유유상종이랄까? 자기 수준에 맞는 기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세대는 어떠한가? 확실히 세대차가 있다.

어제 아침, 하나는 시험공부에 바쁜 틈에도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다. 조간 신문을 펼쳐서 ‘TV 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음성 다중으로 밤 11시에 방영이 되는 ‘U 보트의 영웅’을 보고 싶었다.

임시 준비생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TV 시청도 자유스럽지 않다. 그 시간대에 집에 올 수가 없다.

“엄마, 나 녹화 예약해 두었어요. 오빠가 오면 다른 녹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 시간 지정

— 채널 선택

그 정도면 아무 때나 시청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세대는 그같은 자유스러운 기계 조작이 어렵고, 생활화되지 않아서 방영이 되는 시간대 아니면 소

용이 없다.

요즘 우리 집에서는 TV 연속극인 ‘을밀에선 봉선화’를 열심히 본다. 그런데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보면 못보는 날이 더 많다. 기계 조작이 된다면 예약 녹화만 해 두어도 편리한 시간에 마음대로 보는 것이다.

그 점에서 비디오 세대가 가진 문화는 엄청나게 앞서 있다.

권위주의와 권위의 혼돈

어떤 가정에서는 거실에다가 “아버지의 지정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금줄을 치듯 ‘신성 불가침’을 선언했다.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아버지의 입장을 돋보이려는 권위주의의 장치다.

신세대의 특징 가운데 자유 분방하고 지능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기성 문화나 기성 세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철이 아버지는 사상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시비가 벌어졌다. 통일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었다.

“우리는 민주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6·25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게 아닙니다. 남한의 입장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통일을 저해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된다. 지금 우리 곁에 물결치는 사회 혼란이 그같은 발상을 하도록 꼬리를 치고 있다.”

“역사를 아세요? 아버지는 역사에 취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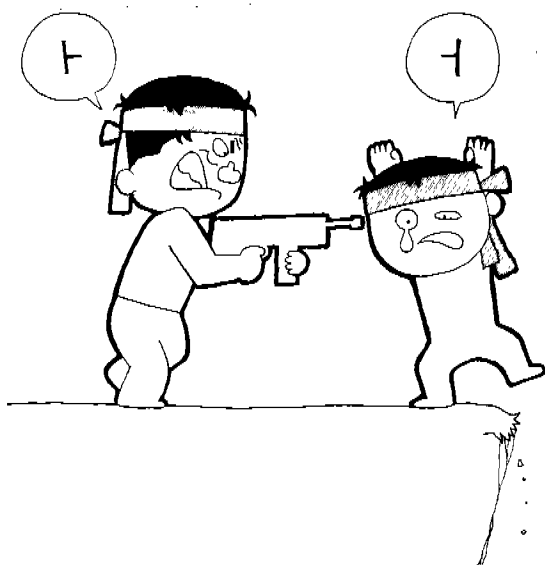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다. 그것은 곧 생각의 차이인데, 생활 양식까지도 그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과 같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한 가족 사회라고 하더라도 연령

의 차가 있고, 학력의 차이가 있고, 생활 양식,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대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흔들리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 아버지 세대는 역사를 모른다.
- 개방적인 것이 더 근대적이다.
-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사리를 판단해야 한다.

지극한 단순 논리가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신 세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당위론은 위험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신문화와 기성 문화가 얽혀 있다. 문화 역사가 짧아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다. 신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는 가치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가치 갈등도 있다. 여기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아버지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물리적인 장치가 ‘아버지의 좌석’이라는 발상을 하게 된 연유일 것이다.

고정관념은 고인 물과 같아서 썩을 위험 부담도 있다.

신 세대는 늘 새로운 것을 쫓다 보면 뿌리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기 쉽다.

여기에 적합한 것은 ‘권위 가꾸기’이다. 권위주의는 목에 뺨뺨하게 힘을 주는 행동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는 당위성이 있고 개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철이 아버지의 세대관은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다.

첫째 : 신 세대를 이해한다. 그들의 생각, 언어, 생활, 감각을 관찰하고, 거부하지 않는 자세 즉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둘째 : 자신의 실력을 갖춘다. 새로운 지식의 흡수, 새로운 사조의 섭렵, 문화 활동의 참여(연극, 음악, 무용, 발표회 등의 관람) 여행 등으로 부권을 늘린다.

역학 원리에 따르면 힘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불균형은 파괴가 된다. 신 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때, 기성 세대는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따라간다는 자세는 자기를 가꾸는 방법이다.

자기 힘을 쌓으면 다른 힘과 평행이 유지될 수 있다.

“아버지, ‘편리 공생’을 설명해 주세요.”

“응, 그거! 고래가 바다 속에서 고생스럽게 살거든. 그런데 고래의

몸뚱이에다가 짐을 지은 ‘파개비’는 덤으로 자기만 편히 사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실력파다! 캡인데, 캡!”

부권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다. 봉건적인 해석으로 권위주의자가 아닌 수평관계를 지탱하면서 살아나는 권위이다. 그것은 멋이 있고 절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힘이 있으며 현대화된 감각도 있다. 그 힘에 승복하면 세대차는 지울 수 있다. 큰 소리나 용돈의 물량 공세나 권위의 자리가 아니어도 해결이 된다.

진리와 지혜가 이루는 조화

세대차를 수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기성 세대는 뇌세포 조직에서 하루 10만 개의 세포가 사멸되어 가면서 기능이 저하된다.

- 기억력이 감소된다.
- 지식의 양이 위축된다.
- 예리한 판단, 민첩한 동작이 안 되고 둔하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경험의 기회가 많아서 체험으로 얻은 진리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 서양 속담에 ‘지식의 1톤보다 경험의 1온스가 더 낫다’라는 것이 있다. 경험에서 얻은 진리는 생명력이 있는 지식이다.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중요한 것이다.

자녀의 세대 즉 신 세대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이 쌓여 간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조직의 구성은 반드시 다세대 집단을 이루게 된다. 가정에서 기성 세대와 신 세대가

어울려서 협력할 수 있는 협동 작업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어떨까?

원익이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로 주말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두 세대가 함께 농장에 나간다.

“원익아, 지금 오이의 성장이 나빠다. 그 원인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날씨가 가물어서 흙 속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럼 물을 떠다가 줘요?”

“그건 스며들지 않아, 밭둑 너머에 도랑이 있잖아? 그 물줄기를 끌어 오도록 해 보자. 오이밭 이랑에다가 물을 대어주자”

“아버지 그게 좋겠어요. 땅 속 깊이 물이 스며들고, 오래오래 수분이 유지 되겠는데요”

농장의 작업은 병충해 방제, 작물 관리, 수확의 적절한 시기 등이론보다도 경험이 중요하다.

그 같은 지식이 필요한 기회를 가졌을 때 아버지의 능력은 솟아오르고, 존재 가치가 돋보이고, 신 세대는 기성 세대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가족끼리 대화의 장면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기르는 신 세대가 싫어하는 이야기, 기성 세대를 경멸하는 소재가 있다.

- 옛날,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넘긴 이야기
- 어려운 처지에서 굶주렸거나 헐벗은 이야기
- 부실하게 공부한 이야기, 경험한 내용 설명

그것은 대화의 장이 형성되지 않고, 논리적 사고보다는 단순 사고 유형인 신 세대가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스쳐가는 정도의 이야기로 그런 화제를 택하면 모르지만, 자기 지

식의 보파리처럼 자꾸 풀어놓으면 신 세대는 외면 하기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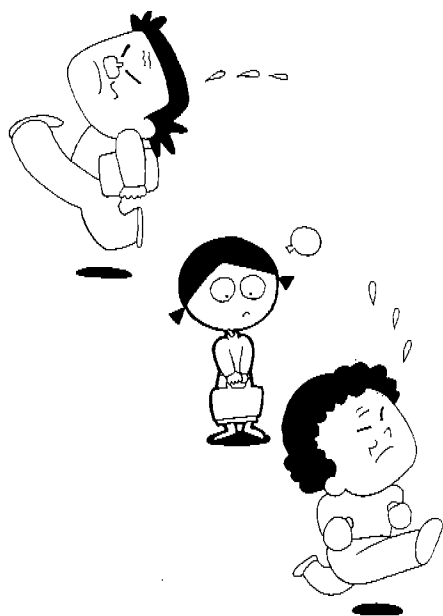
특히 대화의 장을 열어서 세대차를 좁히는 가운데, 신 세대를 압도하는 무기라고 할까?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은 언어 수준이다. 여기에서 대화의 장이 확대된다.

- 정확한 언어 능력
- 비유, 해학적인 언어 감각 사용
- 어휘력의 확장, 활용

세대차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잘 가꾸려고 노력하면 축소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우리 사회는 발전을 하면서 과도기의 현상을 보이는데 비교적 세대차가 심한 가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맞벌이 부모는 문제인가



부모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자녀는 모른다. 여기에서 생긴 틈은 대화의 선이 끊어지는 문제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 제한된 시간, 문제 발견, 공동 사고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생활 시간대가 다른 부담

상담실에 비친 맞벌이 부모의 걱정과 또 맞벌이 부모를 가진 자녀들의 걱정은 서로 상반된다.

먼저 부모의 입장을 살펴 보자.

“부모는 죽도록 벌어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용돈 넉넉히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요?”

“그럼 뭐가 필요해?”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요.”

사실 부모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 그러나 자녀의 욕구나 눈은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꾸 거리감이 있는 행동을 하는 자녀를 발견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문제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

- 학업 성취도가 낮다.
- 담배를 피운다.
- 용돈을 과다하게 지출한다.
- 안정감이 없다.
- 만화가게, 전자 오락실 출입이 습관화 되었다.

이들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자기 중심적인 생활의 기회가 많았고
- 부모가 맡기거나 던져주는 용돈이 많았으며

- 할 일이 없는 무료함을 달래는 비상 수단을 찾다가 손쉽게 빠지는 함정으로 굴러떨어진다.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를 통솔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대화이다. 그런데,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칫하면 자녀들과의 사이에 대화의 선이 끊어지는 수가 있으며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

-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
- 피곤한 부모는 퇴근후가 유일한 대화의 시간인데 일방적으로 기피해 버렸다.
- 자녀는 빗나가고 있거나 빗나가 버린 뒤라 대화에 접근이 안 되고, 수용 태세가 망가져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는 권위와 의무로 마땅히 자녀 지도를 해야 하는데 거부 반응 때문에 지도력은 모두 반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지도력은 무력해지고, 무위로 끝이 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는 잡초처럼 쓸모없이 자라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민숙이의 부모는 큰 걱정을 했다. 가정에서 가출한 딸을 생각하면 직장에 나가서 일할 의욕을 잃었다.

“언제 집을 나갔지요?”

“10여 일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남의 모처에 방을 빌어놓고 친구와 둘이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있지요?”

“답배를 피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밖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한번 발생한 문제는 쏟아버린 물과 같다. 얼마나 걱정하고 시달려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보니까 민숙이는 불량배들의 손에 들어가서 혼숙도 하고, 도둑질도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행동으로 들어서는 때를 전환점이라고 본다면 기회는 있었으나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민숙이의 부모는 맞벌이 때문이라고 후회를 했다.

혜원이의 항변

맞벌이 부모가 생활 전선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을 자녀는 거의 모른다. 실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역부족이다.

혜원이는 공무원인 아버지, 여의사인 어머니가 항상 불만이었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하교해서 집에 갔을 때, 친구들의 어머니처럼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도 고생을 더 하시는데?”

“집이 텅 비어 있고 쓸쓸해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저는 가슴 속에 곧 쓸쓸한 바람이 스며들어요.”

“네가 할 일을 찾아 파고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텐데.”

“선생님, 그게 잘 안되어요. 어려서는 어쨌든 줄 아세요?”

“글쎄.”

“저는 한 동안 엄마가 안계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길거리를 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키가 큰 아저씨가 제 손목을 잡고 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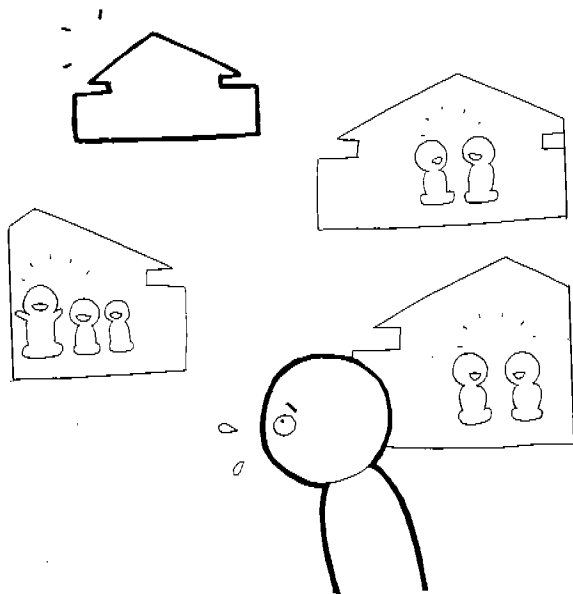
었어요. ‘날 따라와 과자 사 줄께.’

그래서 저는 울면서 도망쳤어요. 그 다음 부터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포기했어요.”

혜원의 수난사(受難史)는 길었다. 성장기에는 특히 어머니의 애정이 신체적 영양소에 머무르는 정서적 영양소이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귀소 본능으로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간다. 어머니는 얼핏보면 그저 한 사람의 여자인 듯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보금자리이며, 사랑의 운동장이며, 절대적인 존재이다.

자녀들이 귀가를 할 때, 제1성으로 ‘엄마’와 ‘어머니’를 찾는데, 그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행위이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이며, 아내이며, 여성으로 한 사람이 3역을 해야 하는 어머니다.

문제는 부모의 기능 또는 역할에 있다. 산술적인 근거를 동원하여 어머니의 힘이 모두 1이라고 본다면, 소수로 분할해야 한다.

가사담당의 역할 : 0.5

아내의 역할 : 0.1

어머니의 역할 : 0.4

이런 산술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해 보면, 다기능을 발휘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주력 임무에 최대의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보면 시간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 설계가 달라야 할 것이다. 직장에 매달리는 시간이 주력 임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 담당이나 어머니의 역할도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들은 그 같은 어머니의 사정을 모르고 자기들에게 배당되는 어머니의 시간만 계산하며 막연한 소망으로 이런 것들을 바란다.

- 우리 어머니도 직장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 우리들과 자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 어머니가 그립다.

상담실에 오는 학생들의 하소연이다. 맞벌이 부모 밑에는 제2의 해원이가 수두룩할 것이다.

그들의 애정 결핍을 감싸주는 방법

동물의 육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매슬로우의 육구의 5단계설을 주장했다. 기본적인 육구는 본능적인 육구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고, 안정, 참여, 존경, 자아실현의 육구는 그 다음의 것들이다. 인간은 어른이고 청소년이고를 가릴 것 없이 1차적인 육구에의 기대나 요구가 강렬하다. 것처럼 자녀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성별, 연령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1차적인 육구처럼 부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양과 동양은 자녀 양육 방식이 다르다. 서양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기르려고 부모 곁에서 떨어져서 자라게 한다.

외교관으로 서울에 와있던 헤리슨씨의 가정 이야기이다. 이태원의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연주회를 관람하러 가면서 부부는 아기 방에다가 자녀를 놓아두고 현관문을 잠그어 버리고 갔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래 집에서 사람이 쫓아왔다. 단수가 된 뒤 수도꼭지를 안 잠구었던 헤리슨씨 부부가 나간 뒤 급수가 되었다.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그 물이 아랫집으로 쏟아졌다. 사람이 쫓아오고, 경비원이 달려와서 비상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 보니 아기 방에 혼자 남은 꼬마가 섬에 갇힌 듯 침대에 앉아 있었다.

동양 특히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은 아기 적부터 자녀를 너무 싸서 기르고 품에다가 안고 자며 끌고 다니고 놓아주지를 않는다. 문제는 거기에도 있다. 길에서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없다. 손을 잡아주고, 안타까와 한다. 감기라도 걸리면 얼음이 녹아서 깨어지듯 바라보고 불안해 하고, 걱정을 한다. 자녀들은 그런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혼자 집에 남게 되면 크게 걱정을 한다.

지난 여름, 한밤 중에 상담실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여보세요.”

“예.”

“상담실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요?”

“혼자 집을 보자니까 무서워서요.”

“왜 혼자 집을 보아요?”

“식구들이 모두 피서를 갔어요.”

“학생은 왜 안 갔어요?”

“집 보라고 해서 안 갔어요.”

잠 못 이루는 밤에 상담실의 구원을 요청할 만큼 심약하게 된 원인은 그 부모에게 있다.

김종한씨는 맞벌이 부부였다가 자녀 셋도 모두 직장애 나간다. 아이들이 커지면 별 문제는 없다. 그 집의 가사 처리는 민주적이고 분업화 되어 있다. 어머니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온 식구들이 가사일을 나누었다.

- 세탁물 사소한 것 (양말, 손수건, 와이셔츠) : 자기가 빨기
- 집안 청소 분담 : 방-아버지, 마루-아들 1, 마당-아들 2, 설거지-딸, 큰 세탁·밥짓기-어머니

그런 훈련이 일찍 시작된다면 청소년기의 자녀들이라도 무료하거나 외타심 때문에 부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부모와의 대화는 밀도있게, 요점을 가려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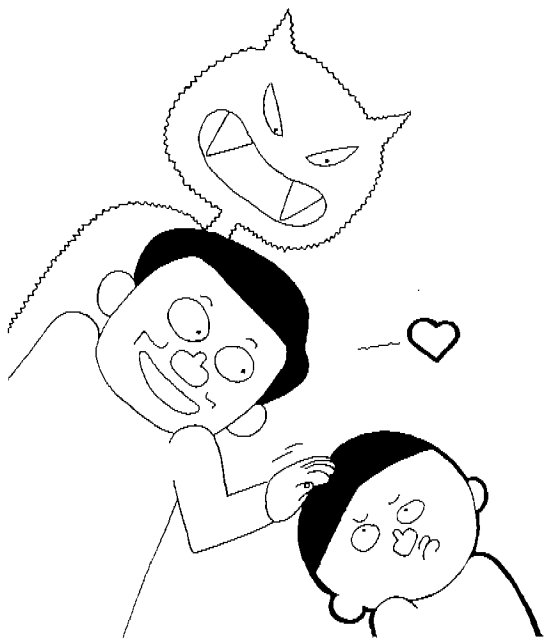
- “오늘, 생활한 것 가운데 이야기 거리는 뭐가 있었지?”
- “재미나는 일은 뭐가 있었어?”
- “잘못한 일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 “내 생각은 이렇다고.”

제한된 시간, 한정된 양을 대화하려면 항상 자녀가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 사고를 요하는 부분의 노출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 속에서 생활 지도, 인생의 문제 해결, 진로 지도, 취미 기르기 등 교육적인 측면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행동은 없는지 대화 속에서 분석해서 추출해 내야 한다.

틈틈이 편지로도 정보의 교환, 지도 사항의 전달이 가능하다. 모신문사 논설위원은 서간문으로 청소년기의 자녀지도를 해서 성공한 사례이다. 글은 문자 언어인데 문자 언어의 교육이 말하는 음성 언어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교육적 효과가 높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위선자인가



부모의 구실은 무섭고 중요하다. 빗나간 교육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두렵다. 부모의 행동은 모형 학습이 된다. 위선이 동일화 효과를 빚어 잘못된 사회성으로 자랄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육의 과오를 어떻게 배제해야 할까?

거짓말장이 어머니와 아들

대개의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주관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줄 안다. 교육 원리나 남들이 창의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주지 않는다.

내 생각이나 주관적인 방법은 위험성이 있다.

첫째는 아집일 가능성이 높다. 무비관적이고 오류를 범하는 줄도 모르는 모순속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둘째는 자기 관리의 부실이다. 자녀의 인격이나 성격은 가정에서 형성된다.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빚어진다고 표현해야 적절하다.

여기에서 부모의 구실은 무섭고 중요하다. 빚나간 교육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우며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할 과제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인성이나 행동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 모델을 무의식중에 잘못 노출시키면 엄청난 반응 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생리학적 용어 가운데 ‘획득 형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환경, 훈련의 영향을 입어서 얻어지는 형질이다.

상당 내용 가운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

남옥이 어머니는 중학생인 아들을 크게 걱정했다.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가게에 가서 장난감, 책, 파자를 훔쳐 옵니다.”

“남옥이는 딱 한 번 그런 장난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을 학교에서 지나치게 도둑으로 물거든요. 선생의 교양을 의심합니다.”

“우리 아빠는 선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에는 살림살이며, 아이

들 간식도 넉넉해요. 아이가 아쉬운게 있어야 남의 것을 훔치지
요.”

어머니의 상담 내용으로 보면 억울한 것이 틀림없다. 누명이나
오해를 받는 학생의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 조회를 해 보았다.

학업 성적 : 불량(최하위권)

품행 : 상가에서 줌도둑으로 3차례의 신고가 있었음.

교실에서 급우의 가방을 뒤져서 가져간 물건(워커맨)이 있
음.

문제점 : 가정 생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다음에는 생활 환경을 이해하려고 그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
원에게 문의했다.

행동 : 어머니-거짓말장이 싸움을 잘 함. 번덕스러움.

아들-줌도둑, 수퍼, 상가에서 몇 차례라고 셀 수 없을 정도
로 도둑질을 함.

공부 : 노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주로 연하의 상대를 찾고 있음.

환경 : 아버지-주벽이 심하고 부부 싸움이 잦음. 큰 소리가 자주
쏟아짐.

나는, 어머니의 행동 환경을 그려보았다. 망상, 위선, 과장 등 바
람직하지 못한 특성 때문에 자녀의 인성에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
가 보여준 역할 모델은 남옥이에게 도둑, 거짓말장이의 행동을 가
르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인데도
어머니는 자기의 모순이나 위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서 더
큰 자녀 교육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남옥이의 사례 연구를 해보면 획득 형질처럼 문제가 발생했다.
그 요인은 후천적으로 인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어머니가 가진 부

정적 행동을 전수해서 얻어졌다.

- 거짓말 잘하고
- 남의 것을 훔쳐오고
- 싸움 잘하고
- 불안정한 생활

부모의 바른 행동은 이처럼 훌륭한 교과서이다. 자녀들에게 대화를 해서 가르칠 때 교양이나 학력의 정도를 고사하고, 건실한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말은 자기 내면 세계의 표현이다. 생각이 바른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한다. 허황되고, 나쁜 근성을 가진 진실하지 못한 부모는 내심이 위선이므로 교육도 거짓으로 할 수 있다.

위선자가 하는 말의 앞뒤

위선자 가운데 거짓말장이의 행동은 아주 재미있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어제의 말과 오늘의 표현이 다르다.

민수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해서 지난 일요일에 낚시를 갔다왔다.

“야, 오늘 내가 팔륙만한 잉어를 잡았다.”

“아버지, 그거 정말이어요?”

“그럼! 그런데 말이야, 살살 끌어올리는데 말이야, 다 올렸을 때 푸더덕 뛰었다.”

“잉어가 뛰어요?”

“그래 그게 딱 달아났단 말이야.”

“이번 일요일에 같이 가자. 꼭 잡아야지.”

1주일 뒤 민수 아버지는 또 낚시를 하러 가면서 아들도 데리고 갔다.

“글쎄, 지난 주에는 피레미 한 마리도 구경을 못했어. 오늘은 꼭 월척을 해야지.”

“아버지, 그 잉어를 어떻게 했어요?”

“무슨 잉어?”

“팔뚝만한 잉어를 잡았다가 놓쳤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인데.”

아들은 그만 웃어버렸다.

자녀 교육엔 대화가 필요하며 가르치고 싶은 것을 표현해야 하고 생활 정보도 교환해야 한다. 꾸중이나 칭찬, 의견 교환이 모두



말로 이루어 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진실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내용을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의 진실한 생활이 여기에서는 크게 작용을 한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기 자식의 성장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다. 진정한 교육을 바란다면 부모의 마음가짐, 말, 생활이 진실해야 한다는 공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육,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 사회 문화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부모덕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청소년들은 부모 앞에서 함구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문제를 치료하는 데는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하는 교육의 질에 따라 개선이나 개악이냐가 좌우된다.

자녀와 부모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론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의 눈에 역할 모델이 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것을 학습 이론으로 비추어 보면 ‘모형 학습’이 된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형으로 알고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특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어머니는 자기의 욕구를 자녀가 대리시켜 주는 보상을 받게 된다.

“내 아들(딸) 착하다!”

“참 잘한다.”

그같은 칭찬이 쏟아지는 이유는 어머니의 가치 기준에 적합하

므로, 어머니는 객관성이야 있거나 없거나 자기의 기준에 도달한 것을 우선 만족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성취도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 보상은 자녀의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어머니가 학습의 모델이 되므로 자녀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을 더 잘하려고 애쓴다.

또 사랑을 거절당하는 쓰라린 경험도 가지게 되는 자녀는 부정적 반응의 괴롭고 재미없는 경험도 하게 된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는 대개는 현실에 밀착하게 되어 모형 학습이 더 강조된다.

민수 아버지의 거짓말이나 위선은 곧 정확한 교육 이론으로 성립된다. 아버지의 행동이 정확한 학습 모형이 되어 민수에게는 학습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거짓말장이 아들이 탄생하고 아버지의 수준에다가 아들의 지능을 더해서 아들은 더 유능한 거짓말장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이론이 성립된다.

모형 학습의 효과는 동일화라고 한다. 이것이 발전해서 사회성으로 자라게 된다.

“집에서 거짓말장은 밖에 나가서도 거짓말꾸러기가 된다.”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난다. 조건을 통제하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위치에 서서 이와같은 학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

- 보상을 주는 사람
- 모형으로 삼지 않으면 사랑을 거절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될 가능성 때문에 택하는 사람

- 나보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
- 자기와 유사점이 있고 외사가 통하는 사람
- 나를 인정하는 사람

부모가 자녀 앞에서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 나라의 속담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말이 있다.

“아이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호기심, 모방심이 강한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생각이나 생활관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 습관, 언어까지도 모두 학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철이의 아버지는 전자 오락실에 가서 도박에 빠져있다. 가산을 탕진하고 자기가 회사의 대표이면서 기업은 던져버리고 전자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 그런데 아들 철이는 다행히 아버지의 후계자가 아니다. 획득 형질이 되어서 언제가는 할 지 모르지만 고등 학생인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비행을 거울삼아 전혀 그쪽을 돌아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같은 거부 반응은 질이 좋은 자녀가 노력한 결과인데 어머니의 바른 판단력이 뒤에 숨어서 작용했던 영향도 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진실하게 가르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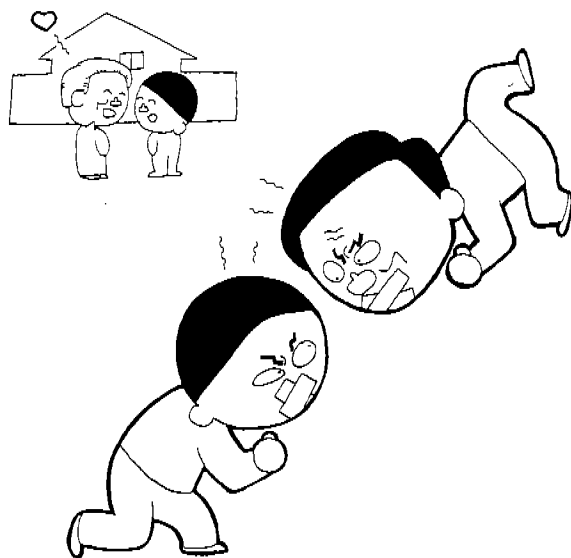
위선을 행사하는 부모는 문제의 부모이며 문제의 부모는 문제를 가르치는 결과를 낳는다.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같은 씨를 뿌린다면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를 기르는 가정 교육이 되고 부모의 역할은 교육이 아닌 비교육을 자행하는 큰

죄를 범하는 셈이 된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기는 어렵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는 조언을 받지 못한 말처럼 엉성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하다. 부모의 지도력을 거부하려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지탄하기도 한다. 어렸을 적 성격 형성 시기의 자녀 교육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교육은 더 어렵고 참으로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독립심, 친화, 성숙을 돕는 지도를 통해서 자율적 행동, 성취적 행동을 지원해야 한다. 가정 교육은 항상 맑은 거울이어야 하며 이때, 부모의 존재는 항상 ‘거울에 비친 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선은 비교육적 역할 모델임에 틀림 없다.

부모-자녀의 대화 어떻게 해야하나



부모와 자식이 이야기 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청
소년 자녀들과 대화를 잘하면서 지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아이는 통 말이 없어요.”

“제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언제 이야기 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이야기해도 통 듣질 않아요.”

“밖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다든지,

“대화는 무슨 대화예요. 부모 말이냐 들으면 되지.”

“아직 어린데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 애들이 뭘알기나 합니까.”

“아직도 어린데 끝째, 제 주장대로 하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 보자.

“자녀들의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지요?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가정의 아이들인지 알고 있는지요?”

“특별히 친한 단짝이 누구이며 왜 그 친구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이성친구는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임 선생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선배나 친구는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가수는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 친구는 없는지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은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맥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반드시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원만하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관계라면 대개 알 수 있는 문제들이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고민이 있을 때 부모를 의논 상대로 하기 보다 친구를 의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전혀 의논 상대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교사를 의논 상대로 하는 경우는 아주 적다고 한다. 부모도 친구도 교사도 의논 상대가 될 수 없을 경우, 그런 청소년들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되어 있으며, 만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겠는가? 물론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 간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의논할 상대가 있다고 믿는 경우와 그럴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다르다.

앞에서 인용한 연구에서 고민이 있을 때 부모를 의논 상대로 한다는 청소년들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의논 상대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청소년들은 모든 현상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고, 회의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평소에 얼마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가족간에 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말을 많이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시절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함께 지내면서 살피 줄 시간과 여유가 있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 생활은 가족 모두가 아침이면 학교로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나 모이게 되므로, 서로를 살필 시간과 여유가 없다. 또 말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말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과 말을 들어주는 기술을 배워 익힐 때가 되었다. 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공부하고 시험치고 실습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교사보다 더 어려운 자녀교육을 해야 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문제는 대화의 기술로 초점이 모아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편에서 보면 어른들의 말을 안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부모의 말을 안듣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사람은 어르거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부족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계속 애쓰는 그런 무엇이 있다. 전문적 용어로는 이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한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편하게 지낼 수가 없고, 어떻게든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먹고 숨쉬고 잠자는 것과 같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 말고 심리적으로 반드시 필요

절에 받은 상처때문에 일생동안 얼마나 괴롭게 지내는지, 어른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상처받은 한 사람의 불합리하고 부적응된 행동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시달려야 하는지, 일파만파(一波萬波)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런 데서 음미해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이 점을 쉽게 잊고, 자기가 상처받은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를 상처주고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대화란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소한 말에서, 바라보는 눈빛에서, 손길에서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말투에서, 눈길에서, 몸짓에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을 하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 부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랑과 인정을 느끼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말하지 않고도 아이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말하지 않고 마음을 전하기란 더 어려운 법이다. 또 아이들은 말로 표현해도 그 말이 진정을 담았는가, 아닌가를 가리려고 애쓴다.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진정을 담고 있는가 민감하게 감지한다. 자녀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감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부모되기 어려운 일이다.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기본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부모가 내말을 들어주고 있다고 자녀들이 느낄 때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른이 기분 나쁜 일은 아이들도 기분 나쁘다. 아이들도 상처입고 놀라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싶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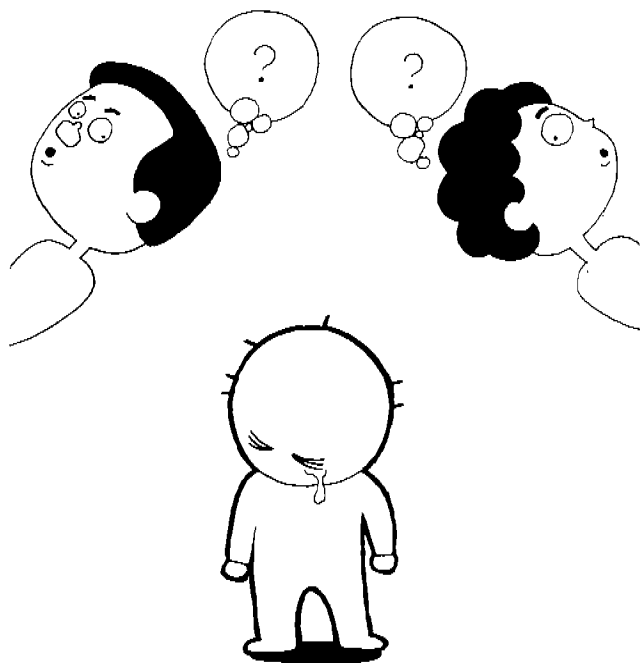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대접해야 자녀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행동, 자포자기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모든 어긋나는 행동이나 비행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는 자녀의 지지자로 늘 곁에 있다는 확신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부모의 자녀 사랑도 절도있게 표현해야 한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어야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랑, 가슴 깊이 숨어있는 사랑,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우선 바로, 지금의 청소년들을 도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느낄 수 있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풀어 보기로 한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집에서 별로 부모와 얼굴을 마주 대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친구 만나고 공부하느라고 집에서 보다 집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기에는 신체변화가 많고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숨은 욕구들과 호기심도 있으며, 자기의 용모, 욕구, 친

구 관계, 장래 문제같은 것들로 고민이 많다. 이런 고민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하며 혼자만 있고, 혼자만 생각해 보고 싶을 때도 있다. 이점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들의 형편은 어떤가? 어릴 때는 그저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될 줄 안다. 자녀들의 몸이 제법 어른스럽게 되고 부모와 체격이 비슷하게 되거나 더 크게되면 가슴 뻐뻐하고 마음 든든해 질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저 아이들이 무얼 알고 어떻게 한 사람의 성인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갑자기 초조해 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가치관과 가정의 전통을 가르쳐 주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서두르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급해지는데 반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시간은 없다 보니까 겨우 얼굴을 마주 대할 때마다 성급하게 부모가 하고싶은 말만 하려고 나서게 된다. 이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얘기하고 싶은것, 알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날 때마다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야만 한다면 그 이야기가 잘 들리겠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하고 소리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얘기를 진정으로 끝까지 들어 줄 수 있다면 이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글을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니?”

“말만한 제집애들이…….”

“사내녀석이 그까짓걸 가지고…….”

“너희들이 무얼 안다고……”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아……”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네 말 다 안들어도 알아. 네 속셈은 ……지?”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공부는 않고……”

“○○가 그러던데 네가……”

익히 들어온 이런 말투가 “제 애기 좀 들어 주세요”하던 아이들이 “애기하고 싶지 않아요!”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말문을 닫게 하는 것이나 아닌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부모와 말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려면, 자기가 속을 드러내어 말해도 부모가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기를 꺾지않은 채 끝까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진정을 말하면 오히려 야단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애기하고 싶어 하겠는가?

아이들의 애기를 들을 때는 우선 잘 잘못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애기할 수 있고, 끝까지 애기를 들어야 잘 잘못을 따질 수도 있다. 첫 마디만 듣고, 화를 내거나 다 알았다고 하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면 시비가 가려지지도 않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기만 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쓸데없이 보이는 애기를 한다든가 부모들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만히 참으며 듣고 있기가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 한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익히는 데도 많은 참을성과 연습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연습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녀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으응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기본 좋았겠네?”

“저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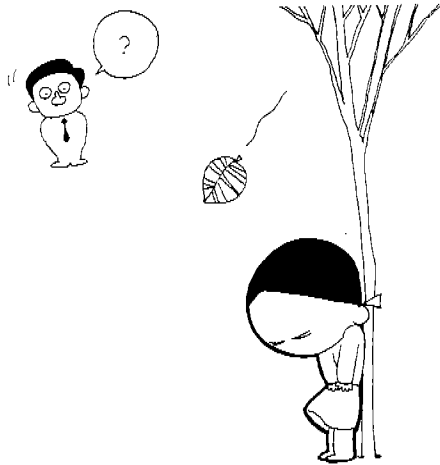
“세상에...”

“어쩌면...”

아이들이 이야기 할 때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이야기는 막히지 않고 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우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야 아이들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할 말이 가슴에 가득 쌓였는데 어떻게 쏟아져 들어오는 애기가 귀에 들리고 마음에 스며들겠는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라는 말을 새삼 새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방법은 우선 아이들이 말을 하고 싶어할 때에 가능하다. 말을 하고 싶어할 때, 말을 중단하지 않고, 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부모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자녀가 말할 때 눈을 바라보거나 주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으응” “그랬구나” “그래서?”와 같은 반응을 계속하면서 주의깊게 듣고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자녀의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 비판하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놓고 할 수가 없게 된다. “비판하지 말고 주의깊게 들어주고 받아주라” 이것이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최대의 비결이다.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더 원한다. 자기의 모든 감정, 생각, 행동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기만 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게 되는 수가 많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이해만 해주어도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해해 주는데 인색한가?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자녀의 얘기를 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부모 나름의 해결책을 성급하게 강요하려고 한다. 들여보지 않아도 다 아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하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돌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성급하게 제시한 해결책을 자녀가 어떻게 받



아들이느냐가 문제이다.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만 해도 부모로서 자녀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말하고 싶어할 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녀에게 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듣는 사람의 생각을 상대방의 말에 담지 않고, 다만 상대방(자녀)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적극적 경청, 혹은 반영적 경청이라고 한다. 이것은 들은 말을 확인함으로써 정말로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한 말의 의미를 다르게 다시 표현해 주므로써 자녀가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수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돼요. 수학을 포기할까 봐요.”

“수학 공부는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지않아 실망이 크구나.”

“속상해 죽겠어요. 누가 또 내 방을 어지럽혔어요.”

“네 방을 누가 어지럽혀 놓아서 속이 많이 상했구나.”

“내일 시험인데 공부가 안돼요. 공부하기 싫어요.”

“시험 공부가 잘 안되나 보구나.”

“치과에 가기 싫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과에 가면 아플 것 같아서 가기 싫은가 보구나.”

꼭 앵무새처럼 한 말을 되받아 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듣는 아이들도 부모님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것이 부모-자녀 관계를 얼마나 다르게 변화시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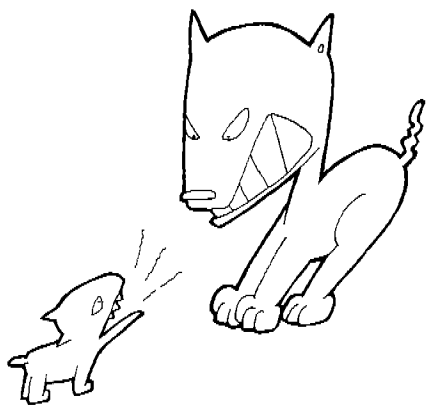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할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확

실한 답을 부모가 해 줄 수 없을 때도 있고 부모가 확실한 답을 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몰라서 “어떻게 해요?”라고 묻는 경우도 드물다. 다만 어지할 바 모르는 마음을 부모가 알아 주기만 바라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구나”라든가, “어째야 좋을지 몰라 걱정이구나” 이렇게만 반응해 주면 아이들은 “예, 그래요”라고 하면서 더 이상 확실한 답을 부모에게 얻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가 많다. 얼마나 신기한 방법인지 한번 시도해 볼 만 하지 않는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자녀들의 말은 “사실은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잘 들어 주시지 않으니 말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틀림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얘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말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발 말좀 해 봐라, 말을 해야 알지”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안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 아이는 여러 번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말하기를 단념했을 것이다. 평소에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한편 자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늘 관심과 주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나는 싫어요



“선생님이 싫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나가 살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해 해서 뭘해요?”

“엄마가 싫어요. 미워요!”

“아빠가 싫어요. 미워요!”

“대학에 가서 뭘해요? 대학에 가지 않을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그럴 때도 부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기 전의 상황이 이미 좋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부정적이고 부모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나올 때도 부모들이 조용하고 침착하게 자녀를 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각자 자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로 적어 보거나 말해 보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 보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들과 같이 소리칠 수도 있고 타이를 수도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분하고 낙담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라도 부모님께 큰소리로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부모-자녀관계는 그리 절망적이지 않다. 대화도 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서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자녀들이 판단한다면 부모님께 이런 말 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모들의 말을 한 번 적어본다.

“왜 그러니? 네가 또 뭘 잘못해서 야단맞았구나! 틀림없지?”

“선생님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니?”

“선생님이 좋고 나쁘고가 어디있니?”

“그 선생님이 참 좋아보이던데?”

“나가라, 나가서 고생해 봐야 안다.”

“도대체 네게 못해준게 뭐가 있다고 그 따위 소리를 하니?”

“공부 안하면 나중에 뭐가 될래?”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니? 어떻게 너 하고싶은 것만 하고 사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나쁜 자식!”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줘도 불만이니?”

“네가 현명하다면 뭐가 중요한지 알 꺼다.”

“남들 다 가는 대학 안가면 넌 뭐가 될래?”

“아빠 엄마가 왜 이런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게 딸이라고 하니?”

“선생님이 싫어요!” 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왜 그러니? 네가 또 뭘 잘못해서 야단 맞았나보구나!”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선생님이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던데”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듣게 된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실제로 부모님들보다 선생님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징이 이상을 꿈꾸고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완전해 보이고 우러러 보이던 부모와 교사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실제로 비판하게 된다.

사실 부모들과 교사들이 모두 다 완전한 인간일 수도 없다.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 정의와 도덕적 판단 기준 등을 자기 나름 대로 형성해 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국민학생 일 때는 부모들이 훈육을 엄격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리광을 받아 주며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를 심어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초조감이 생겨서 서두르게 된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을 하고 나오면 부모들은 당황하고 낙심해서 어쩔줄 모르고 우선 야단치고 설교부터 하려 들기가 쉽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쁘고, 공부할 필요가 없고 집을 나가 사는게 좋고, 대학에 갈 필요도 없으며, 부모들이 싫어서 없

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고 싶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싶고 선생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께 “난 싫어요” “...안 할래요”라는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들을 놀라게 하고 낙담시키고 자기들도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는가?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표현하는 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말이 나온 감정의 언저리, 마음속의 본 뜻을 알아주고 끌어 내어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싫어요”라고 할 때는 선생님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화가 나 있구나 하는 점을 알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설교하든가, “그 선생님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하고 편들어 준다고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네가 선생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라고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아이가 표현한 만큼만 알아 주는 것으로 부모님의 응답은 충분하다. “아, 우리 부모님은 내 기분을 알아주시는구나”라고 자녀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 다음 문제는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동안 선생님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부모님께 주저없이 얘기할 수도 있다. 감정이 어느 정도 분출할 통로를 찾아서 마음이 진정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부모님의 한 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 다음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이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말을 한번 찾아 보자.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집에 들어오는게 그렇게 싫어?”

“집을 나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때도 있지?”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지가 않단 말이지!”

“공부가 힘들고 지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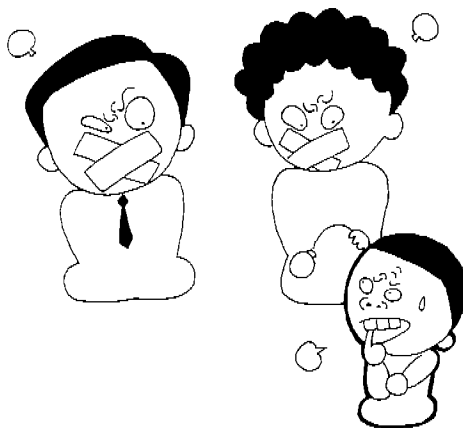
“공부를 한다고 해도 능률이 오르질 않는구나!”

“엄마가 싫을 때도 있구나!”

“아빠가 미워질 때도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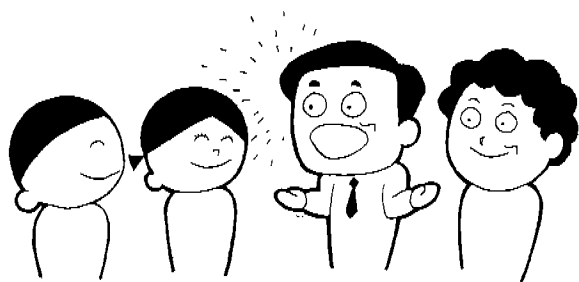
“이렇게 까지해서 대학에 가서 뭘하나 싶지?”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불안하구나!”



이런 응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뻘뻘지는 대답이 아닌가? 그러나 한 번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한 번 해보고 그만 소용 없다고 하지 말고 계속 여러 번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도 쑥스러울 것이다. 더구나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 자녀들과 갈등을 줄이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가족 분위기를 바란다면 몇 번 연습이라도 해서 부모들이 변화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과는 다른 부모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우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위해 뭔가 배우려 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선 감동하고 감사해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자녀들의 문제에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우선 실제로 힘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힘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방법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가? 격한 감정을 인정받고 표현하게 되면 안정을 찾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 차근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왜 대학에 가기 싫은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에 와서는 왜 안정을 얻을 수 없는지 얘기할 수 있다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싫다’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싫다’는 말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과 울분이 쌓여서 엉뚱한 문제로 감정을 폭발시켜 일을 그르치게 된다.

참 잘 했구나



칭찬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칭찬을 받는 사람 모두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칭찬하는데 별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녀가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든가 학교 성적이 올랐다면가 심부름을 잘 했을 때, 동생을 잘 돌봐 주었을 때, 설거지를 잘 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당연한 일을 했다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치는 않는가? 칭찬할 사례를 들어 보려고 해도 그 예를 쉽게 찾기 어려운 것도 우리 부모들이 칭찬에 매우 인색한 증거가 되는 것 같다. 아무리 당연한 일을 했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보통 부모들이 칭찬하는 말을 적어 보기로 하자.

“청소를 다 해 놔네. 웬일이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넌 정말 부지런하고 착한 내 딸이다.”

“넌 원래 머리가 좋은 아이니까 당연한 결과이지.”

“심부름이라면 너 빼놓고 누가 있니? 너는 참 좋은 심부름꾼이구나!”

“너는 언제나 인정 많은 아이지!”

“너는 원래 꼼꼼하고 깔끔한 아이니까 설겅이도 잘 하지!”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위의 칭찬하는 말들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너는… 한 아이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착한 내 딸, 머리 좋은 아이, 심부름꾼, 인정 많은 아이, 착한 아이 등이다.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기분을 한번 추리해 보자. 정말 자기네는 언제나 착하고 착한 일을 했으므로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이 언제나 착하고 부지런하고 인정받고 공부 잘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착한 아이”라는 의미는 언제나 변함없이 착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싶고 매우 불편한 마음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칭찬을 한 사람에게 자기의 착하지 않은 모습을 빨리 보이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고 억지로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수도 있다. 심부름꾼, 인정 많은 아이가 되자면 언제나 심부름하고, 인정을 배풀고, 설겅이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싶을까? “웬일이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는 말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맘이 들도록 빈정대는 말이다.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당연하지”라는 칭찬도 좋지 않은 방법이다. 머리가 좋다고 노력없이 성적이 좋아질 수는 없다. 다음에 성적이 떨어지면 “나는 머리가 나쁜가봐. 할 수 없잖아!”라고 변명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아이”라는 인간 자체를 평가하는 칭찬 보다는 “깨끗이 청소했구나!” “동생을 잘 봐 주었구나” 등의 실제로 그 아이가 한 행동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지적해 주고 칭찬하는 사람의 기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칭찬 방법이다. 따라서 위의 칭찬을 더욱 바람직한 칭찬법으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집을 깨끗이 치웠구나. 깨끗해 진 걸 보니 엄마 기분이 참 좋다.”

“심부름 해줘서 고맙다. 네 덕에 엄마 시간이 많이 절약 되었구나!”

“동생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엄마가 밖에서 마음놓고 불일을 봤지.”

“성적이 올라서 정말 기쁘다. 네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지?”

집을 깨끗이 치웠구나, 심부름 해줘서 고맙다, 동생을 돌봐줘서 고맙다, 성적이 올라서 기쁘다 등의 표현은 실제로 한 행동을 과장하지 않고 행동한 그대로를 지적해 준 것이다. 그 지적에 “고맙다, 기쁘다”라는 부모의 기분을 간략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고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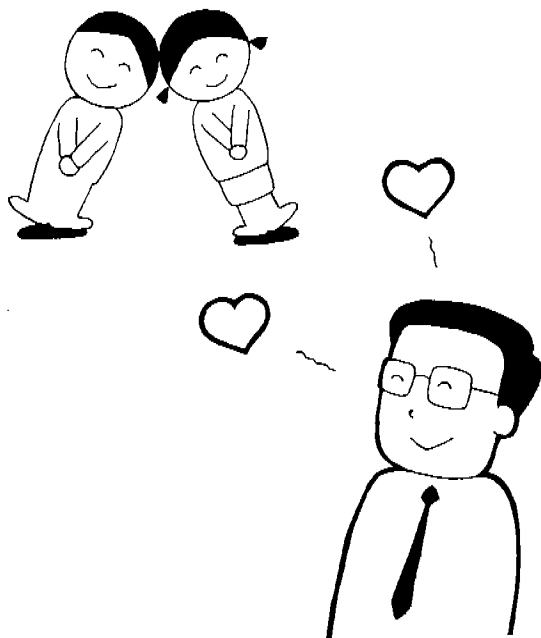
더 잘 해보고 싶은 자발적인 욕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좋다. 칭찬은 앞으로 칭찬받을 행동을 계속 잘 하게 하는 힘이 있다. 또 자기가 한 행동이 칭찬을 받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게 된다. 칭찬을 받으면 자기는 칭찬받을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그쳐야 한다. 부담없고 기분 좋다고 과장해서 하게되면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칭찬받고 자란 사람이 남을 칭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본대로 배워서 행하기 때문이다. 칭찬이 인색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칭찬을 하지 못한다. 잘한 일에는 서슴 없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하므로 자녀들의 행동을 칭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되겠다.

칭찬은 해야 할 일과 하면 좋은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므로 사람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든다. 칭찬은 부모와 자녀간에 기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게 하는 신기한 비법이다. 아무리 이것을 알고 있어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칭찬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을 할 기회가 없다고 불평한다. 그렇다. 자녀들이 칭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부모들이 칭찬할 기회는 오지 않는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칭찬받을 일을 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대개 자녀들을 야단치고 꾸짖을 기회는 많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꾸짖지 않고 지나치면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꾸짖을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칭찬의 경우는 어떤가? 조금이라도 잘 했을 때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큰일나기 때문에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한 일을 지적해서 칭찬해 주려고 부모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녀들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도 부모들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을 칭찬해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잘 하는 행동을 찾아 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눈에 불을 켜고라도 우리 아이의 잘



한 일을 찾아 칭찬해 주는 일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언가 잘 하는 행동이 없을까 하고 자녀의 행동을 보게 되면, 무언가 잘못 하는 행동이 없을까 하고 잘못을 찾으려는 사람보다 부모-자녀 관계에 따뜻한 감정이 흐르게 된다. 우선 관계가 우호적이 되고 썩그린 얼굴이 아닌 미소 띠는 얼굴로 자녀를 대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칭찬해 줄 행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좋은 일이라도 한꺼번에 완전한 행동을 기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차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면 칭찬할 일은 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어제보다 방이 좀 깨끗해졌네!”

“먼저 보다 수학 전수가 3점이나 올랐구나!”

“오늘은 동생하고 한 번도 안 싸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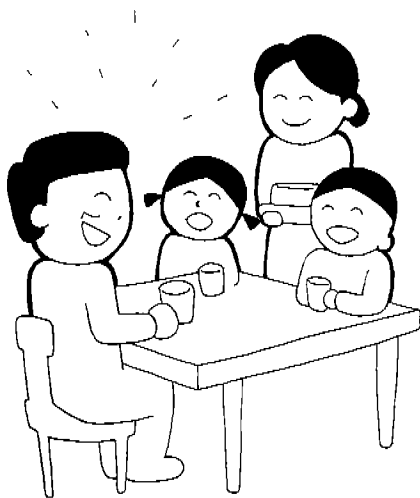
“도시락을 깨끗이 먹었구나!”

“하라고 하기 전에 목욕도 했구나!”

“오늘은 전화거는 시간이 좀 짧아졌구나!”

이와같이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오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알고 지적해 주면 부모-자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의 행동도 많이 향상될 것이다. 칭찬 받을 행동이 없다는 불평은 정당화 될 수도 없다. 애정을 가지고 관심있게 자녀들을 보살피면 칭찬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행동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부모의 기분을 표현하면 좋은 칭찬이 된다. 자녀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도대체 공부를 한거니 안한거니? 이게 뭐야. 등수가 이렇게 떨어지다니. 철이는 1등이래. 독서실에서 맨날 공부한다더니 뭘 한거야? 친구들과 싸돌아 다닌거지? 너같은 애가 대학에 갈수나 있겠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가 공부해!”

학업 성적에 관한 부모들의 이러한 꾸지람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꾸지람을 할 때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공부했던 말이에요”(항의)

“철이와는 왜 비교해요? 엄마는 철이 엄마와 같아요?”(비교)

“친구들과 싸들아 다닌걸 봤어요? 언제 보셨어요?”(사실 아님)

“나같은 놈이 대학에 갈 수 없겠지요”(자포자기)

“공부해도 소용 없어요”(자기불신)

부모님들이 모두 성적표를 받아 보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잘했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겠구나!”라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쉽다. 부모들의 이러한 꾸지람을 듣고 ‘이 소년은 방으로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 갔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사실은 이 꾸지람을 들은 소년은 마음 속으로 위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고, “내 방에 들어오자 눈물이 막 쏟아졌다. 너무나도 속이 상해 날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떨어진 성적을 보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처럼 꾸지람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할 때도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꾸지람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면, 꾸지람을 하는 방법을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나무라는 것은 다시는 이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는 똑같은 일로 효과도 없는 똑같은 꾸지람을 수없이 되풀이 하고 있다. 방법이 틀렸다면 한번 바꾸어 볼 만도 하다. 지금까지의 꾸지람 방법에는 무엇이 잘못 되있는

가? 성적이 내려 갔을 때 제일 속상하고 당황해 하는 사람은 본인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성적이라야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것이다. 위에 소개된 아이의 경우도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자기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속상하다. 죽고 싶었다.”

“부모님께 미안하다.”

“어지러웠다. 아빠, 엄마,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비웃음 소리
... 더욱 큰 건 내 자신의 목소리였다.”

“참을 수가 없다.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런 속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기란 매우 어렵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나무랄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의 하나는 다른 아이와의 비교이다. 옆 집의 철이 이야기는 왜 해야 하는가? 부모들의 입장에서선 늘 다른 집 아이들 보다 우리 아이가 나아져 되고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집 아이 뿐 아니라 형제간에도 비교해서 “네 형 좀 봐라” “네 동생만도 못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나는 너 만할 때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너 보다는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좋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난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라고 반발하고 비교당한 사람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먼저 보다 못했구나”하는 식으로 본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너 같은 애가 대학에 갈 수 있겠니?”라는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극을 주려는 의도에서 했다고 해도 아이들에

게는 결정적으로 좌절하게 하는 말이 된다. “그럼요, 나 같은 놈이 대학에나 갈 수 있겠어요?”하고 반발하게 되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없겠지.”하고 자포자기 하게 된다.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을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나는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믿는 것이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믿고 생각하는 만큼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성취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가 없고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 “…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같은 사람”과 같은 질타가 아닌 실제로 잘못된 행동 자체만을 꾸짖어야 한다. 사람 자체, 인격 자체를 들먹여서 인신공격을 해서는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더니 친구들과 싸돌아 다닌거지?”라는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언제 보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때에는 공부한다고 힘들게 앉아 있었는데…” 하면서 항의할 지도 모른다. ‘친구들과 싸돌아 다니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면 정확하게 언제, 누구와, 어디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독서실에 가 봤더니 자리에 없더구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좋지만, 보지도 않고 넘겨짚어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부모님과는 말할 의욕이 없어진다. 성적이 떨어진 것보다 부모의 나무라는 말 자체에 반감을 갖게 된다면 위와 같은 꾸지람이 성적 올리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면, 바람직한 꾸지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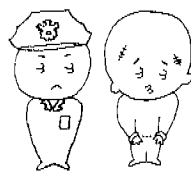
선, 본인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보자.

“성적이 떨어졌으니 너도 속이 많이 상했겠다. 실망이 컸지? 아빠도 많이 실망했고 걱정되는구나!”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 주시는 구나) “정말로 미안합니다.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니? 아빠와 엄마가 도와 줄 일이 없겠니?”

목청을 높여서 오래 나무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다. 잘못된 일은 정확하게 인격이나 인간성이 아닌 행동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기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짧게 끝내면서 “너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해 준다. 꾸지람을 들을 때 자녀들은 혹시 이 일로 부모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몹시 걱정하게 된다. 꾸지람 받을 행동을 한 것은 그만큼 나무라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간 자체를 나무라기 보다는 “그렇게 한 것은 나쁘다”라고 행동을 나무라야 한다. 인간성을 나무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나 나쁜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한 것은 나쁘다”고 할 때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좋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되리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은 꾸지람하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성적이 더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부모의 심정을 전달해 주면 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야단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우니 부모 노릇도 참 쉽지 않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실감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면 기분이 나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비난, 질책, 꾸지람을 필수로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은 속상하고 무시당해도 할 수 없고 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 들은 꾸지람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니까 곧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또 다 저 장래를 위해 한 말

이니까 이해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 어릴 때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꾸지람은 간단하게, 짧게, 잘못된 행동만 지적해야 한다. 절대로 과거를 들추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인격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자녀의 잘못을 보고 속이 상하고 실망했다는 점은 분명하고 짧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문제는 자녀가 알아서 할 것이다. 사람은 꾸지람을 통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배우게 되고 양심, 도덕률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꾸지람은 해서는 안될 일을 알게 하지만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또 꾸지람을 듣고 자란 사람은 커서 부모가 한 방식대로 자녀를 꾸짖는 사람이 된다. 꾸지람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꼭 꾸짖어야 되는 일에 한해서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